

“기업이 행복하게! 우리의 내일을 행복하게!”

내년도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2019. 12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목 차

I. 조사개요	3
II. 지역기업의 내년도 경영환경 인식 조사	4
1. 2020년 경제 흐름 전망	4
2. 예상되는 내년도 대내외리스크	5
가. 대내리스크	5
나. 대외리스크	5
3. 내년도 사업계획 및 방향	6
4.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	7
5. 정부 하반기 역점 경제정책 과제	8
III. 결론 및 시사점	9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내년도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2. 조사기간

- 기초자료 조사 : 2019. 12. 4 ~ 12. 18
- 자료정리 및 분석 : 2019. 12. 18 ~ 12. 23
- 보고서 작성 : 2019. 12. 23 ~ 12. 26

3. 조사대상

- 전북지역 소재 기업 131개사

4. 조사방법

- FAX와 전화조사 병행

5. 조사항목

- 2020년 경제흐름 전망
- 사업계획 및 방향
- 경제정책 역점 과제
- 예상 대내외리스크
- 신규채용 계획

6. 기 타

- 무응답은 통계처리에서 제외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퍼센트(%) 총계가 다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7. 응답기업 특성

- 본 조사에 참여한 131개 기업들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설문 응답기업 특성]

구 분		응답업체(개)	응답비율(%)
전 체		131	100.0
매 출 액 ¹⁾ 규 모	대 기 업	8	6.1
	중 기 업	14	10.7
	소 기 업	109	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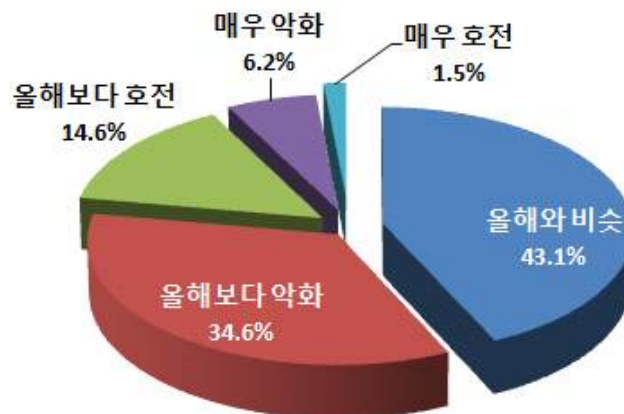
주1) 매출액 규모 구분 기준은 전년 기준 매출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 중기업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함

Ⅱ. 지역기업의 내년도 경영환경 인식 조사

1. 2020년 경제 흐름 전망

- 올 한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수출 감소, 내수침체 그리고 급변하는 고용·노동환경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은 물론 도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내년도 경기 상황 역시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131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흐름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40.8%)’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됨
- 내년도 경제 흐름에 대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6.1%에 불과했으며,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3.1%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냄(매우악화 6.2%, 매우호전 1.5%)

[내년도 경제흐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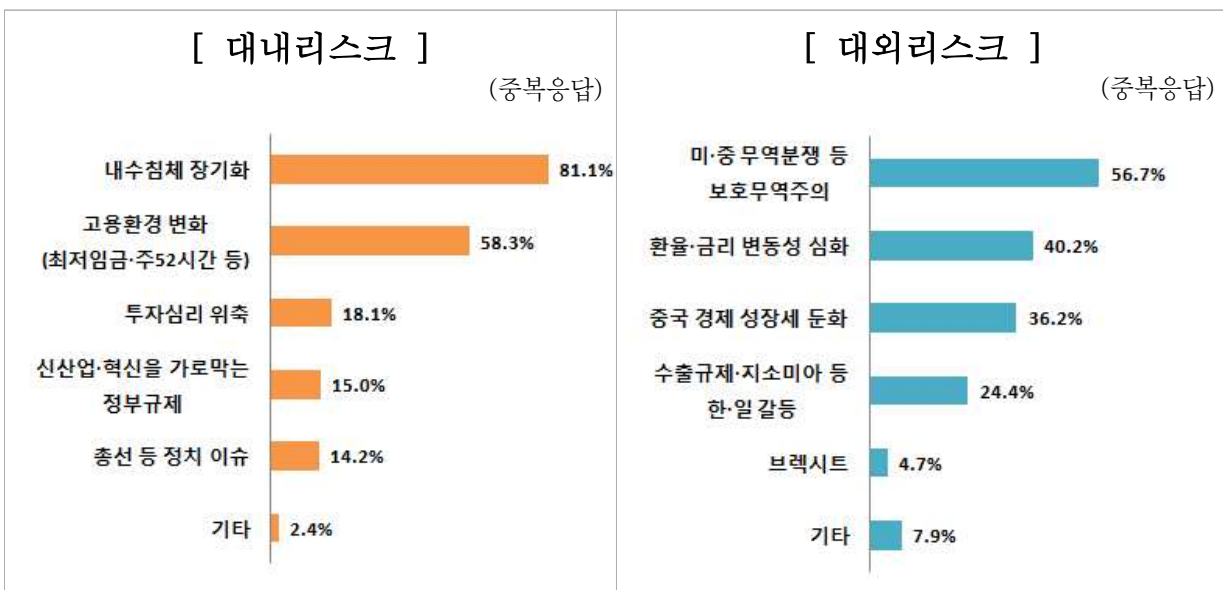
2. 예상되는 내년도 대내외리스크

가. 대내리스크

- 우리지역 기업들은 내년도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리스크로 응답 기업의 10곳 중 8곳이 ‘내수침체 장기화(81.1%)’를 꼽았으며, 뒤를 이어 ‘최저임금·주52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라는 응답이 58.3%를 차지하며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이외에도 ‘신산업·혁신을 가로막는 정부규제(15.0%)’, ‘총선 등 정치 이슈(14.2%)’, ‘투자심리 위축(18.1%)’ 등의 응답이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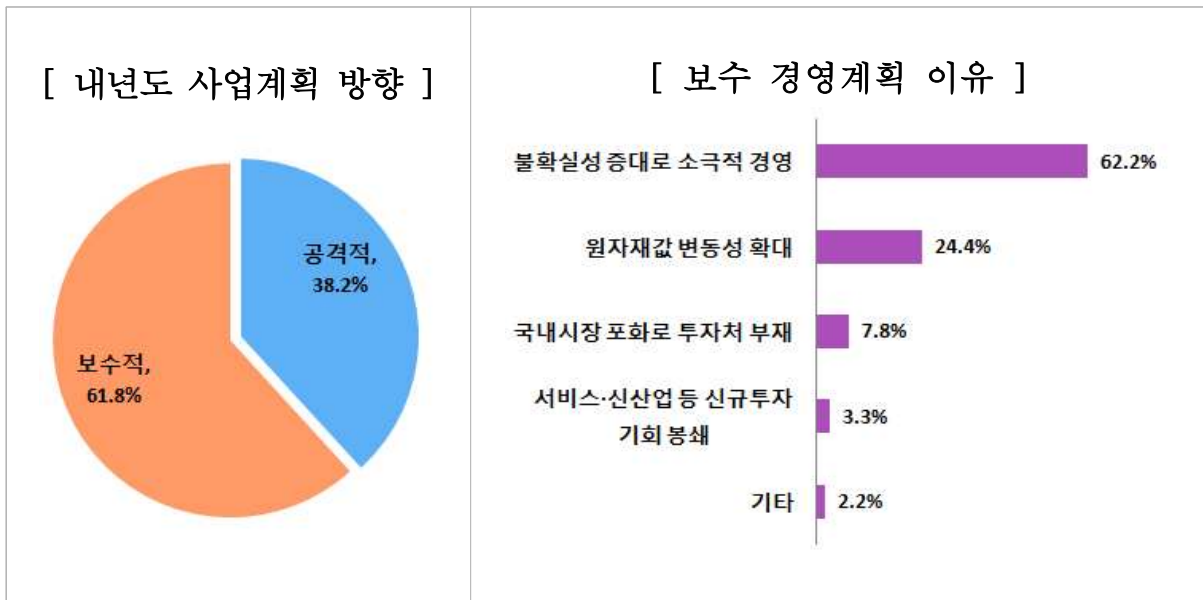
나. 대외리스크

- 올해 전라북도의 수출 대상국으로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으로 조사된 가운데 내년도 전북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리스크로 응답기업의 ‘美·中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라는 응답이 56.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뒤를 이은 응답으로는 ‘환율·금리 변동성 심화(40.2%)’,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36.2%)’, ‘수출규제 및 지소미아 등 한·일 갈등(24.4%)’, ‘브렉시트(4.7%)’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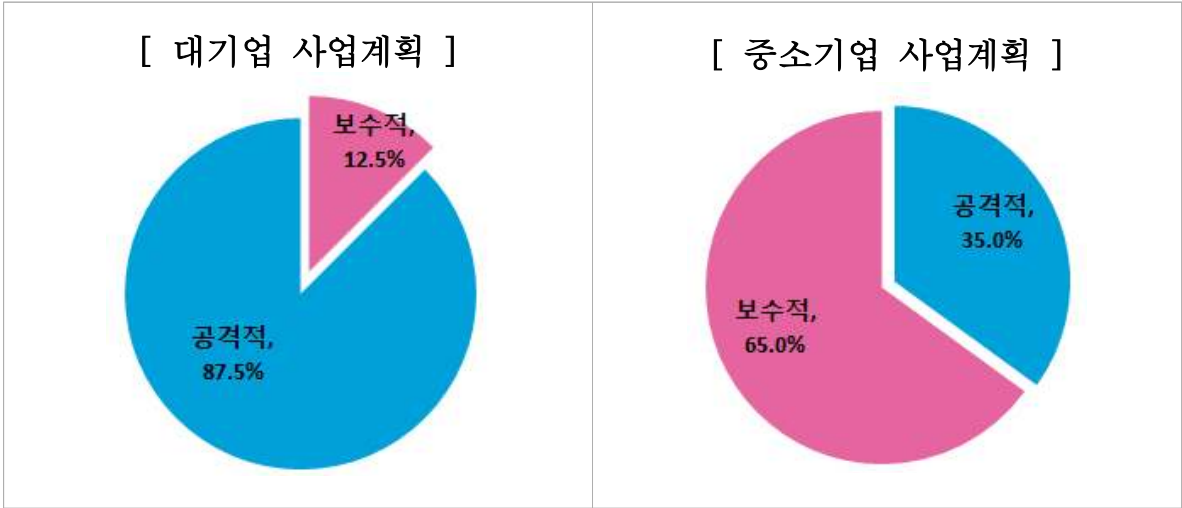


3. 내년도 사업계획 및 방향

- 우리지역 기업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의 방향에 대해 ‘보수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라는 응답이 61.8%로 높았으며, ‘공격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라는 응답은 38.2%를 차지함
-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보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62.2%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자재값의 변동성 확대’ 때문이라는 응답이 24.4%의 응답률을 보이며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공격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는 응답이 87.5%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보수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라는 응답이 65.0%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면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심한 온도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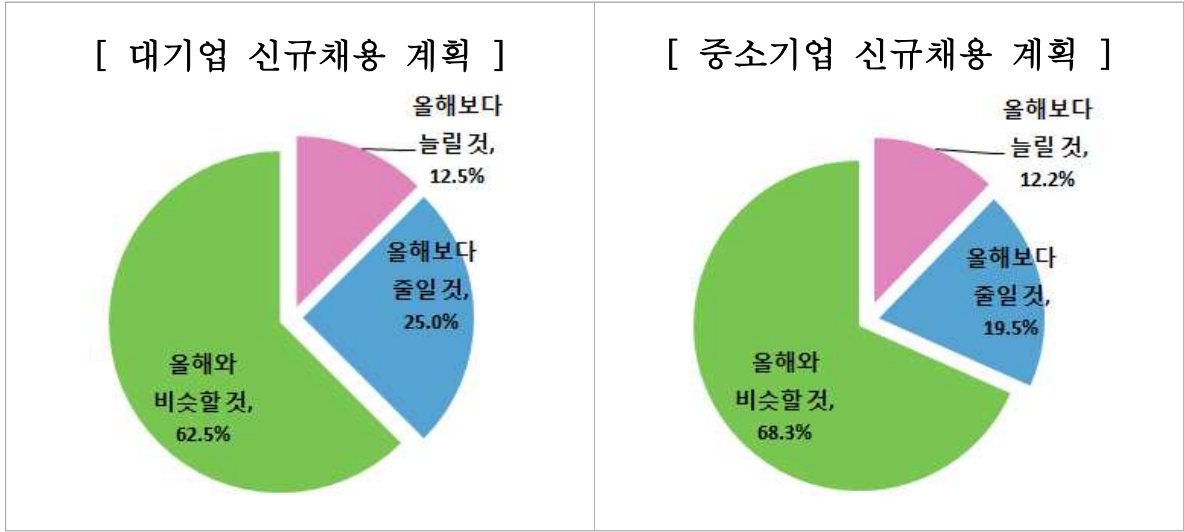


4.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

□ 우리 지역 기업들은 내년도 신규채용에 대해 ‘올해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19.8%로 ‘늘리겠다(12.2%)’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채용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7.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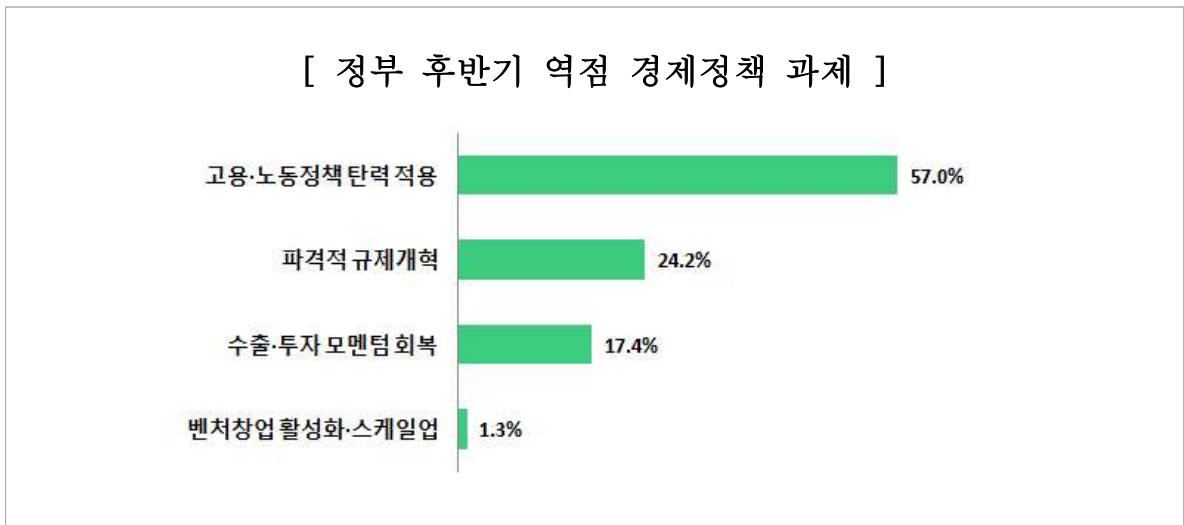


□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올해보다 채용을 줄이겠다’는 의견이 각각 25.0%, 19.5%를 차지하며 ‘채용을 늘리겠다(대기업 12.5%, 중소기업 12.2%)’는 의견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한편, 채용을 줄이겠다는 의견의 비중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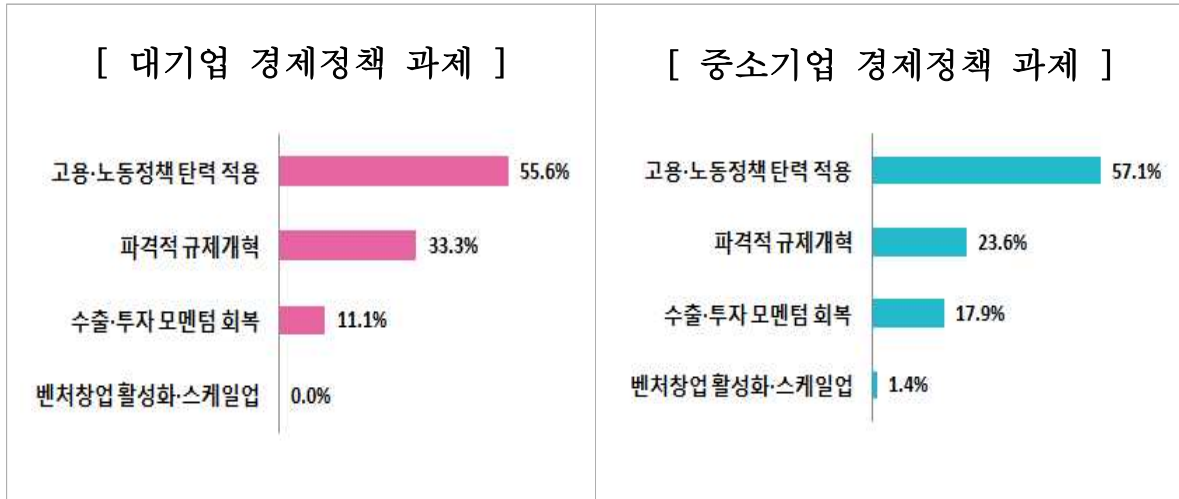
5. 정부 하반기 역점 경제정책 과제

- 내년부터 이번 정부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지역 기업들은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뒤편 할 경제정책으로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고용·노동정책의 탄력적인 적용(57.0%)’을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꼽았으며, 뒤를 이은 응답으로는 ‘파격적인 규제개혁(24.2%)’, ‘수출과 투자 모멘텀 회복(17.4%)’, ‘벤처창업 활성화 및 스케일업(1.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고용·노동정책의 탄력적인 적용’이 각각 55.6%, 57.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가운데, 뒤

를 이은 응답으로 ‘파격적인 규제개혁’이 각각 33.3%, 23.6%의 응답률을 나타내면서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규제에 의한 갈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Ⅲ. 결론 및 시사점

-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기업들은 내년도 경제 흐름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침체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급변하는 고용·노동환경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이 경영활동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 앞선 이유들로 우리지역 기업들은 보수적인 경영활동과 신규채용에 있어 소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내년도 지역경제 상황도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다가오는 2020년에는 현 정부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동안의 경제정책을 돌아보고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고용·노동 정책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기업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